

이끌어 나갈 기동입니다. 기동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낙농육우협회의 도지회와 연합지회가 모금에 적극 활동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함께 해 봅시다!

우리 서울우유 연합지회도 적은 정성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낙농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운동이 되도록 정부차원의 협조와 범국민적인 동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농인 여러분!

너도나도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다 이것저것 다 퍼준다고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유는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들 합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를 보내는 일에 각자 형편 따지며 거절할 수 없으며, 퍼주는 행위라 비난해서도 안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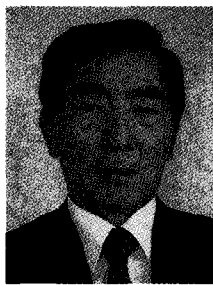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유는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이야 말로 기아에서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도 돕고 우유 소비 홍보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 뿌듯한 운동입니까?

우리 한번 뚝뚝 뭉쳐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에 동참 합시다.

## 우리우유는 통일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

우리협회에서 제시한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을 지켜보는 한 낙농인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낙농을 시작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3D업종 중에도 가장 어려워 모두가 주저하는 일이었는데 이제야 보람을 느끼



강 해 진  
부산우유연합지회장

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다.

나의 작은 지원이 북한의 형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운동들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면서 몇 자 언급하고자 한다.



이 운동의 취지는 순수한 민간인 차원의 지원으로 한정하길 바라며 단순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언급되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의 북한 동포 식량난 해결지원이라는 등의 접근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6. 25 종전 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던 분유세대들은 그 당시의 배고픔과 가난을 잊지 못하여 지금도 그때의 분유 맛을 느껴보기 위해 일부로 유아 분유를 맛보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지 어언 반세기를 지나가고 있으니 조국의 통일은 요원한 실정므로 그동안 온갖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긴장완화는 커녕 오히려 더욱더 긴장을 촉발시키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낙농을 30년 이상 한 낙농인의 세대에서는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차라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훨

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세대는 어린이이다. 이 어린 친구들의 미래를 위한 체위향상과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어린이(북한 어린이)는 남한의 어린이에 비해 작게는 7.5cm, 크게는 26.7cm 가량 키 차이가 나고 몸무게도 1.7kg에서 20.5kg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린이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 즉 우유를 양껏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완전식품인 우유를 북한 어린이에게 공급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동질감을 우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유의 영양학적인 측면은 기 알려져 있어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성인이 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식습관으로 인해 체형, 체력 등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북한어린이들도 남한의 어린이들과 비슷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지는 뜻이야 말로 장기적인 통일우유의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지원 품목도 이전에 지원한 바 있는 분유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시유위주의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분유나 멸균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길므로, 당

초 의도한 순수한 목적대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시유는 유통기한에 구애받는 상품의 특성상 우리가 목적인대로 어린이들에게 신속히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지원용도에 대한 시비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1998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으로 고 정주영 회장이 한우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 관광을 위한 뱃길을 열었다. 이와 같은 민간인 차원의 대북지원은 상당한 호응을 얻어 대북관계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이어 받아 낙농육우협회 차원에서 최초의 농민단체의 대북지원사업으로 젖소 떼를 이끌고 가서 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공급원을 지원하고 농민단체의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된다.

우리나라 낙농가의 대표 단체인 협회는 북한 어린이 우유 공급을 위한 지원금 모금도 인터넷 외에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모금동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가되는 비용은 우리우유 홍보를 위해 조성되는 낙농자조금의 이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히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위원회의 홍보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낙농자조금의 운용에 따른 우유 소비 효과도 메이저 업체 외에는 크게 신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익성의 광고를 통한 전국 낙농인을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익성의 광고시 전국의

---

**북한어린이들도 남한의 어린이들과 비슷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지는 뜻이야 말로 장기적인 통일우유의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 하겠다.**

---

낙농가가 주도한 농민차원에서 마련한 자금(자조금)으로 대북 어린이 우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와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지원사업이 용두사미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아이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협회 내에 별도의 대북지원 창구도 개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시유나 가공유는 반드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감안하여 북한 내의 취약계층인 유소년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젖소 생축 지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낙농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함께 남북의 낙농인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4년 유니세프 자료를 보면 북한의 어린이들이 겪는 성장장애나 만성영양불량이 6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37%가 더욱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어린이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통일국가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국의 낙농인이 합심하여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